

배포일시	2018. 12. 12.(수) 16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예보국 예보분석팀	담당자	팀 장 이 경 희
		전화번호	02-2181-0657

눈과 추위 전망

- (13일 새벽~오전) 서울·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방 눈
 - 아침 출근길, '눈'과 '빙판길'로 인한 '교통 혼잡 주의!'
- (13일 오후~15일 아침) 경기북부, 강원북부 중심 추위
 - 중부지방 중심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
 - ※ 수도관 동파 및 농작물 관리 철저



< 12월 13일 아침 기압계 모식도 >

[눈 전망]

□ (날씨) 기압골에 동반된 눈구름이 서해북부해상에서 우리나라로 유입 되면서 13일 새벽에 서울·경기도에 눈이 시작되어, 오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, 서울·경기도는 오전,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. 전라동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에도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.

- 13일 오전에는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찬 공기가 눈구름을 발달시켜 경기남부, 강원영서남부,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최고 5cm 내외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<예상 적설(13일)>

- 중부지방, 전라동부내륙, 경북북부내륙: 1~3cm (많은 곳) 경기남부, 강원영서남부, 충북북부: 2~5cm

□ (예보변동성) 13일 내리는 눈은 기압골 후면의 찬 공기가 강할 경우, 불안정을 강화시켜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예상적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한편, 예상되는 기압골의 이동경로는 13일 새벽~오전에 경기 서해안을 지나,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지나 오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(유의사항) 눈이 주로 13일 새벽~아침에 집중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,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- 눈이 그친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낮 동안에도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니, 보행자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[추위 전망]

- (날씨) 13일 오후에 눈이 그친 뒤, 북서쪽으로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14일 아침 경기북부와 강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

- (유의사항)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, 수도권 동파를 비롯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

[강풍, 풍랑 전망]

- (육상강풍) 눈이 그치는 13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해져 중부지방과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(5~10m/s, 18~36km/h), 그 밖의 육상에도 14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(3~7m/s, 10~25km/h)이 있겠으니,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- (풍랑) 현재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(12일 16시 현재), 14일까지 풍랑특보(유의파고 3m 이상)가 이어지겠습니다.

- (유의사항) 해상에 강한 바람(10~14m/s, 36~50km/h)과 함께 높은 물결(최고 3~4m)이 14일까지 이어지겠으니,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